

상담자는 전문성을 인정받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훈련에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특히 슈퍼비전은 현 상담 교육체계에서 상담자나 치료사의 전문적인 발달과 성장을 돕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Forinnash, 2012; McClain, 2001)한다. 슈퍼비전의 목적은 슈퍼바이저의 전문적인 역량 개발을 촉진하고 동시에 내담자의 안녕을 달성하는 것으로, 상담 과정과 슈퍼비전 과정은 병렬적(parallel)으로 서로를 비취주며(Bernard & Goodyear, 2009) 발전하였다. 이런 면에서 슈퍼바이저의 역할은 전문가의 성장 뿐 만 아니라 내담자의 삶에도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다.

슈퍼비전은 보편적으로 녹화된 영상자료나 축어록으로 슈퍼바이저의 상담 수행을 평가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형태가 주로 시행된다(두경희, 김계현, 김동민, 2008). 그러나 즉각적이고 체험적인 교육방식의 현장 슈퍼비전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상담이 수행되는 현장에 슈퍼바이저가 직접 참여하고 다양한 형태의 개입을 시도하여 슈퍼바이저의 상담을 촉진하는 현장슈퍼비전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Haynes, Corey & Moulton, 2006). 현장 슈퍼비전은 개입의 시점과 형태에 따라 다양한 방식을 취한다. 첫째, 슈퍼바이저가 상담 회기에 직접 들어가거나 일방경이나 비디오 화면을 통해 슈퍼바이저를 직접 관찰하는 방법. 둘째, 슈퍼바이저가 회기를 관찰하는 동안 슈퍼바이저가 어려움에 당면했을 때 직접 개입하는 방법. 셋째, 슈퍼바이저가 내담자가 보는 앞에서 바로 상담에 대해 자문을 하는 방법. 넷째,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저가 개인상담이나 집단에서 공동 치료자로 함께 작업하며 사례의 성격에 대해 서로 논의하고 모델링

과 시범을 보일 수 있는 공동치료(co-therapy) 방법이다(Goodyear & Nelson, 1997). 이러한 현장슈퍼비전은 슈퍼바이저의 직접적인 치료적 개입방식을 관찰한 슈퍼바이저가 자신의 내담자에게 바로 적용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생생한 교육방식이라 할 수 있다.

슈퍼비전의 대부분을 현장슈퍼비전에 두고 있는 사이코드라마는 여타 심리상담과 마찬가지로 국내에 도입되던 초기에 정신과 환자중심의 심리치료 접근방식이었다면 이제는 다양한 임상 대상과 일반인을 중심으로 상담, 복지, 교육, 산업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그 역할이 확장되고 전문 인력 양성도 확장되고 있다. 실제로 직업능력개발원의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처음으로 ‘드라마상담사’라는 자격증이 등록된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의 자격현황을 살펴보면, 총 57건의 드라마 관련 자격증이 등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이코드라마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 학회와 협회, 민간단체, 드라마 관련 학위를 인정받는 대학이나 대학원, 사이버 대학 그리고 대학교 산하 평생교육원등을 통해 배출되는 드라마 관련 심리상담사들은 2010년을 기점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를 반영하듯 사이코드라마가 임상이나 교육현장에서 진행되기를 바라는 사회적 요구와 사이코드라마 전문가의 활동 분야의 양적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전문가 수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고 전문가 자격 유지율마저 44.2%에 불과하다(양혜진, 성은옥, 김주현, 2015). 사이코드라마 전문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와 훈련을 거쳐야한다(Fontaine, 1994). 정해진 일련의 수련을 통해 이론과 치료 기술을 습득하고 임상경험과 슈퍼비전을 통해 실제

주인공(내담자)과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 특히 현장수퍼비전은 보다 효과적인 사이코드라마가 이루어지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Krall, Fürst, & Fontaine, 2016). 사이코드라마는 언어를 뛰어넘어 몸을 통해 직접 표현하는 행위적 접근이다. 주인공, 디렉터, 보조자, 관객 등이 현장에 함께 참여하는 집단치료이고 비언어적 표현이 많다. 이러한 특징의 사이코드라마는 현장을 떠난 지연된 수퍼비전에서 다루기에는 제한이 많다(Bernard & Goodyear, 2009; 최대현, 2016).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현장수퍼비전 방법이 요구된다. 또한 주인공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윤리적인 책무성을 고려해 볼 때 사이코드라마 현장수퍼비전에 대한 다양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Krall et al, 2016).

사이코드라마 현장수퍼비전에 관한 국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수퍼바이저들은 수퍼비전을 경험하면서 집단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가 강화되고 집단은 매우 생산적이며 집단 업무에도 중요한 이점을 가진다(Tsegos & Tseberlidou, 2002)고 보고하였다. 또한 수퍼바이저는 수퍼비전에서 자신이 디렉팅을 수행하거나 동료들이 수행하는 것을 직접 관찰하는 수퍼비전이 더 효과적(Tsegos, 1993)이었다고 밝혔다. Foulkes (1975)는 디렉터의 역할을 증진시키거나 약화시킬 수 있는 수퍼바이저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었고, Hinkle(2008)은 사이코드라마에서 주인공의 심리적 갈등을 다루는 거와 마찬가지로 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저가 수퍼바이저와의 갈등 관계를 적용하여 병행과정을 다룰 수 있어야 하는 수퍼바이저의 역할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수퍼바이저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디렉팅과 수퍼비전의 어려움,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훈련과정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들을

잘 이끌어주는 인간적이고 존경받는 수퍼바이저의 모습을 제안하였다(Apter, 2003; Krall & Fürst, 2009; Marineau, 2006). 이러한 연구들은 상이한 접근법과 철학이 적용되고, 절차, 방법, 기술에 있어서 상당한 다양성이 존재하는 사이코드라마 현장수퍼비전(Krall, 2009)이 수퍼바이저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는데 의의가 있으나 수퍼바이저들의 발달과정에 따른 학습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탐색은 이루어지지 않은 제한점이 있다. 이를 고려해 볼 때 현장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저들의 경험에 대한 보다 실제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국내 사이코드라마 수퍼비전을 다룬 연구는, 사이코드라마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저의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양혜진, 2015)와 사이코드라마 수퍼비전 연구과제(양혜진 외, 2015)를 중심으로 한 합의적 질적연구(CQR)가 있다. 양혜진(2015)은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저는 ‘넘어야 할 커다란 산’, ‘삶의 변화’,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 ‘계속해서 가야할 수행의 길’로 경험되어짐을 밝혔고, 양혜진 외(2015)는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저의 관계에서 신뢰감 형성과 회복의 경험이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저 모두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반면 두 연구 모두 사이코드라마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저가 겪는 각각의 수퍼비전 경험을 밝히지는 못하였고 발달단계가 고려되지 않음으로써 수퍼바이저의 발달 과정에 따른 경험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는 수퍼바이저의 발달 수준에 따라 수퍼비전의 경험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Hogan, 1964; Loganbill, Hardy & Delworth, 1982)를 참조해 볼 때, 수퍼바이저의 발달 수

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저 각각의 독특한 경험의 차이를 분리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교육적 측면과 임상적 측면을 갖춘 현장수퍼비전 과정이 사이코드라마 수퍼비전의 대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사이코드라마 현장수퍼비전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이코드라마 전문가가 되기 위해 현장수퍼비전에 참여하는 슈퍼바이저의 경험의 구조와 과정을 심층적으로 밝힌다면 사이코드라마 현장수퍼비전에 대한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향후 나아가갈 바를 안내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는 사이코드라마 현장수퍼비전에서 슈퍼바이저의 경험 과정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개방적으로 탐색하여 사이코드라마 현장수퍼비전 경험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도출하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인 근거이론을 채택하였다. Glaser와 Strauss에 의해 개발된 근거이론은 경험적 자료로부터 이론을 도출해내기 위해 고안된 체계적 과정으로 어떤 현상을 경험하는 참여자들의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을 보여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과정을 경험하는지를 밝혀 하나의 이론으로 발전시키고 설명하는 연구방법이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 결과는 수퍼비전에서 슈퍼바이저들의 경험의 실체를 파악하여 사이코드라마 현장수퍼비전의 경험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도출하여 사이코드라마 현장수퍼비전의 효과적인 교육체제를 구축하고 운영체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더불어 한국 사회의 맥락에 맞는 사이코드라마 현장수퍼비전 이론을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수퍼비전 개입의 실제적 근거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사이코드라마 현장수

퍼비전에서 슈퍼바이저의 경험의 구조와 과정은 어떠한가?”

방 법

연구 설계

본 연구의 목적은 사이코드라마 현장수퍼비전에서 슈퍼바이저의 경험의 구조와 과정을 밝힘으로써 경험에 대한 ‘실체이론’을 생성하기 위해 근거이론 방법을 채택하였다. ‘실체이론(Substantial Theory)’은 연구 중인 실체 영역의 자료로부터 이론을 생성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가설과 개념이 자료로부터 나타나며 연구 중에도 체계적으로 자료와 관련하여 생성된다(Glaser & Strauss, 1967). 근거이론은 자료로부터 이론을 도출하기 위해 ‘이론적 표본추출(Theoretical Sampling)’을 강조한다(Glaser & Strauss, 1967). 연구자가 자료에 근거하여 관련성을 가진 개념들의 표본을 추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연구자는 일정 수준의 엄격함을 유지하며, 창의적 능력으로 적절한 범주를 명명화하고 자극을 줄 수 있는 질문과 비교를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범주들과 속성들 차원을 가리키는 어떤 사건이나 우연한 일들을 표본추출하여 발전시키고 연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Stern, 1980). 이러한 근거이론의 철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탐색하고자 하는 연구 주제인 ‘사이코드라마 현장수퍼비전에서 슈퍼바이저의 경험의 구조와 과정’에 관하여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에 기본을 둔 근거이론 방법을 사용하고자 하였다. 슈퍼바이저들은 수퍼비전에서 기존에 가졌던 자신에 대한 태도와 신념, 타인과 세계에 대한 것들이

새로운 것들에 도전을 받으면서 이를 유지하거나 재구성하는 상호작용을 거친다. 연구자는 핵심범주를 생성하고, 패러다임 모형과 과정분석을 통해 중심현상이 인과적 조건과 맥락적 조건에 어떤 구조로 관련되고, 중재적 조건과 작용/상호작용, 결과가 어떤 구조로 관련되어지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Strauss & Corbin, 1990) 등을 조명할 수 있는 절차와 기법을 사용하여 사이코드라마 현장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저의 경험의 변화 과정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 선정 및 특성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는 사이코드라마 현장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저의 경험을 탐색한다는 연구목표에 맞추어 현장수퍼비전을 실시하고 있는 1) (사)한국사이코드라마·소시오드라마학회와 2) (사)한국드라마심리상담협회에서 훈련과정을 이수하여 자격증을 취득한지 5년 미만, 현장수퍼비전 횟수가 12회 미만의 초심수퍼바이저들을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이들은 사이코드라마 수련과정에 입문하여 현재도 현장수퍼비전을 받으면서 초급 전문가로서 성장해 나가고 있다. 이들의 풍부한 현장수퍼비전

경험과 다년간의 수련 경험은 사이코드라마 현장수퍼비전의 경험을 생생하게 드러내 줄 것으로 보여진다. 연구자는 자료수집과 분석의 과정에서 이론적 포화에 도달할 때까지 참여자 선정, 인터뷰, 자료분석을 계속 하였다. 2017년 6월~8월까지 참여자 16명을 면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1명의 참여자가 자격증 받은 시기와 현장수퍼비전 횟수가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15명을 참여자로 결정하였다.

본 연구는 현장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저의 지도하에 디렉팅을 훈련받는 상담자를 ‘수퍼바이저’로 명명하였다. 15명으로 선정된 참여자들의 평균연령은 46.5세(34~60세), 현장수퍼비전의 경험 횟수는 평균 8회(5~12회), 자격증을 받은 시기는 2013~2016년(2013년 6명, 2015년 8명, 2016년 1명), 사이코드라마2급 전문가 7명, 드라마심리상담사 8명으로 구성되었다. 학력은 박사 1명, 박사수료 1명, 박사과정 1명, 석사 11명, 석사수료 1명이다. 성별은 여성 11명, 남성 4명이며 결혼 여부는 기혼 13명, 미혼 2명이다. 참여자들의 직업현황은 학교, 가정폭력피해자지원센터, 기업관련 교육이나 파견상담소, 가족상담소, 청소년 관련 상담복지기관, 여성의 전화, 보건소 등에서 상담·복지, 교육·보건 관련 종사자들이다. 참여자들의 현업 경력을 보면, 상담·복지 경력은 평균 6.6년(1~16년), 교육·보건 경력은 평균 11.6년(5~22년)이다. 참여자들은 서울(5명), 경기도(6명), 전라도(2명), 경상도(2명)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 사이코드라마 현장수퍼비전에

- 1) 한국 사이코드라마학회·소시오드라마학회의 훈련가 집단에서 필수교육과 수련감독 및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고, 워크샵과 학회활동 등 총 400시간 이상을 수련하고 수퍼비전 6회 이상과 필기와 실기시험을 통과하여 ‘사이코드라마 2급 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자
- 2) 한국드라마심리상담협회의 지정수련과 자율수련 총 300시간 이상을 수련하고, 수퍼비전 3회 이상, 학술대회와 워크샵 등 학회활동을 4회 이상 참여하고 이론과 실기시험을 거쳐 ‘드라마심리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자

서 슈퍼바이지의 경험에 대한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심층면담하였고, 현장수퍼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 연구자가 직접 관객으로 참여하여 관찰 하였다. 연구 참여자 모집방법은 2017년 5월~7월까지 한국사이코드라마·소시오드라마학회, 한국드라마심리상담협회 홈페이지 온라인 게시판에 연구대상자 모집 공지 후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밝힌 연구대상자 중 연구 선정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메일과 전화로 신청을 받았고, 연구에 직접 참여한 자의 추천도 병행하였다. 현장수퍼비전과 관련된 문헌을 개관하여 면담용 질문지를 핵심질문과 추가질문으로 반구조화하여 구성하였고 반구조화 된 질문내용은 참여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수퍼비전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핵심질문은 포괄적이며 중립적인 질문 “사이코드라마 현장수퍼비전에서 당신의 경험은 어떠했나요?” 로 이루어졌으며 추가질문 및 후속질문은 핵심질문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나오지 않았을 때 “수퍼비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무엇이었나요?” 로 좀 더 구체적이고 초점화된 질문을 구성하였다. 질문내용은 참여자에게 면담 1주일 전에 이메일로 발송하고 참여자가 활동하는 거주지로 직접 찾아가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 연구방법, 면담 내용 녹음, 익명성과 비밀보장에 대해 분명하게 알리고 면담 참여 동의서를 받은 후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시간은 1시간~1시간 30분가량, 인터뷰는 개방형 질문에서 점점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으로 갈대기 접근 방식으로 진행하였다(Strauss & Corbin, 1990). 1차 면담 내용을 분석 후 개방 코딩하여 범주를 설정하고, 그 결과를 참여자들과 전화나 메일로 2차면담을 실시하여 중심현상과 핵심범주를 명확히 하였다.

윤리적 고려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 참여자의 윤리적 고려는 이론적, 실천적 준비와 더불어 연구자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는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온라인 교육과 질병관리본부의 온라인 교육 과정을 이수하였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생명윤리준수 서약서에 동의하여 연구자 소속 대학 IRB(생명윤리위원회) 승인(OOIRB-170315-HR-2017-0403)을 받았다. 면접참여 동의서는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철저한 관리로 신변 노출이나 자료 유출의 불이익 발생 금지, 연구 철회의 자유와 관한 내용, 연구 종료 후 녹음테이프 폐기 등을 포함하였다.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의 절차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사이코드라마 현장수퍼비전에서 슈퍼바이지의 경험을 심층 면담한 자료를 통해 그들의 경험을 추상적으로 도식화하여 실체이론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슈퍼바이지의 면담내용에서 지속적인 비교하기와 질문하기를 거듭하여 개념을 추출하였다. 참여자들마다 공통되게 나타나는 경험이 무엇인지,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질문하면서 사이코드라마 현장수퍼비전에서 슈퍼바이지의 경험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계속적으로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이때 연구자가 갖고 있는 기존의 태도나 사고와 편견을 괄호치기하여 판단 중지하도록 노력하였다. 다수의 질적 연구를 수

행하고 강의하는 상담심리 전공 교수에게 자문을 받았고 질적 연구로 학회지 논문을 2편 이상 출판한 2명의 상담심리전공 박사수료생과 공동 분석 및 논의를 하였다. 자료 분석 과정에서는 분석과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원 자료에 다시 돌아가 참여자들의 언어를 심층 분석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방코딩(Open Coding)은 근거 자료를 통해 현상에 이름을 붙이고 개념을 도출하고 범주화하는 단계이다(Strauss & Corbin, 1998). 이론적 표본추출로 선정된 참여자와의 녹음된 면담내용을 전사본으로 풀어 줄 단위로 정리하여 1차 개념화 작업을 하였다. 이때 중복되는 내용이나 전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 문장 외에 대부분 문장에서 개념을 발견하였다. 2차 개념화 작업에서는 개념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의거하여 하위범주를 발견하고 떠오르는 의미를 추상화하는 3차 범주화 작업을 하였다. 범주화가 되면 그 속성을 구체화하고 그것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속성과 차원으로 분류하여 범주들 간의 관계를 구분하였다. 참여자 면담에서 생성된 모든 개념들의 목록을 검토와 분류, 비교 작업을 거치고 추상화 작업을 하여 최종적으로 103개의 개념, 43개의 하위범주, 19개의 범주가 생성되었다. 축코딩(axial coding)은 범주들 간에 서로 어떻게 연관되고 교차하는지를 관찰하여 패러다임 모형을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심현상,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로 통합하였다(신경립 외, 2004). 과정분석 단계에서는 15명의 참여자 사례를 패러다임 모형으로 기술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들이 나타내는 변화를 통합하였다. 본 연구 사이코드라마 현장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저의 경험 과정은 5단계로 나타났다. 다른 범주들 간의 관계를

통합하여 핵심범주를 도출하는 선택코딩 과정을 통해 이론을 원자료와 비교해보는 일을 계속하면서 개방코딩과 축코딩 과정에서 개념과 범주가 수정되는 순환적이고 반복적인 과정을 거쳐 이론을 정교화 하였다.

연구의 평가

본 연구는 삼각검증법, 연구참여자 검토, 동료간 협의를 평가기준으로 삼아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Denzin(1989)이 제시한 삼각검증법(triangulation)은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된 원 자료를 이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참여관찰과 심층면담, 관련 자료수집의 방법을 통하여 얻어진 자료를 범주화하고, 비교하여 일관성과 타당성을 높였다. 연구참여자 검토(member checks)란 수집된 정보와 도출된 해석을 가지고 연구참여자에게 돌아가 다시 점검하는 것(Lincoln & Guba, 1985)으로 인터뷰 후 기록한 사항이 분석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왜곡된 것은 없는지, 모호한 의문사항이 생길 때 마다 연구참여자에게 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확인하여 분석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수정하여 참여자들의 언어를 심층 분석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동료간 협의(peer debriefing)와 크로스 체크링으로 연구자가 오류나 편견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연구 전 과정에 걸쳐 정직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padgett, 1998). 본 연구에서 다수의 질적 연구를 수행하고 강의하는 상담심리 전공 교수 1명, 질적 연구로 학회지 논문을 2편 이상 출판한 2명의 상담심리전공 박사수료생과 협의하여 연구설계 시작부터 지속적으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이론적 민감성을 기초로 수정과 교정, 교차검증을 하여

연구자의 독단적인 주관성을 배제하도록 노력하였다.

결 과

사이코드라마 현장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저의 경험과정에 관한 패러다임 모형

본 연구는 참여자들의 심층 면담 자료를 근거로 개념을 명명하고, 범주화하고, 범주의 속성과 차원을 발달시켜나가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103개의 개념, 43개의 하위범주, 19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범주들 간의 관계는 개방코딩 과정에서 분해되었던 자료를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조합하여 축코딩 절차로 분석하였다. 이는 한 범주를 중심으로 속성과 차원의 수준에서 다른 하위범주들을 연결시키는 것으로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패러다임 모형에 근거하여 그림 1과 같이 제시하였다.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은 ‘현상’을 발생시키거나 발전하게 하는 사건들이나 변수들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8). ‘사이코드라마 치료 작업의 어려움에도 치료 작업에 이끌림’, ‘전문적이고 지지적인 가르침을 기대함’이 중심현상의 원인이 되는 인과적 조건으로 나타났다.

사이코드라마 치료 작업의 어려움에도 치료 작업에 이끌림

참여자들은 다른 상담보다 사이코드라마 치료작업이 어렵고 역동적이어서 잘못된 디렉팅

으로 오히려 주인공에게 상처를 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앞섰다. 그러나 사이코드라마 치료에서 자신이 주인공으로 참여하여 보살핌을 받았던 강렬한 치유경험은 사이코드라마 치료자의 길에 이끌리게 되었다.

하위범주로는 ‘역동적이고 위협요소가 느껴짐’, ‘어렵고 두려워 조심스러움’, ‘치유적 경험으로 이끌림’이다.

제가 사이코드라마 주인공으로 치유 받은 경험이 강렬하죠..... 내가 받은 것 만큼 주인공에게 돌려주고 싶은데 디렉팅이 너무 어렵고 두려운 거예요 ‘이 드라마 디렉팅 못하겠다.’ 그런 마음도 들고 더 소극적으로 되고, 소극적이라는 건 내가 이걸 하면 주인공한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한테 보탬이 안 되고 오히려 상처 주는 건 아닐까 그래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되고, 할 수 있을까 두렵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안하게 되고 노력을 못하게 되고 주저주저 하던 그런 부분이 초창기에 있었어요(참여자 4).

전문적이고 지지적인 가르침을 기대함

참여자들은 사이코드라마의 원리와 기법을 현장수퍼비전에서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그들은 수퍼바이저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체계적인 수퍼비전과 긴장하고 떨고 있는 수퍼바이저의 감정선을 다뤄주고 강점을 찾아주고 지지해주는 수퍼바이저의 가르침을 기대하였다. 하위범주로는 ‘드라마의 원리를 일깨워주길 기대함’, ‘지지적인 가르침을 기대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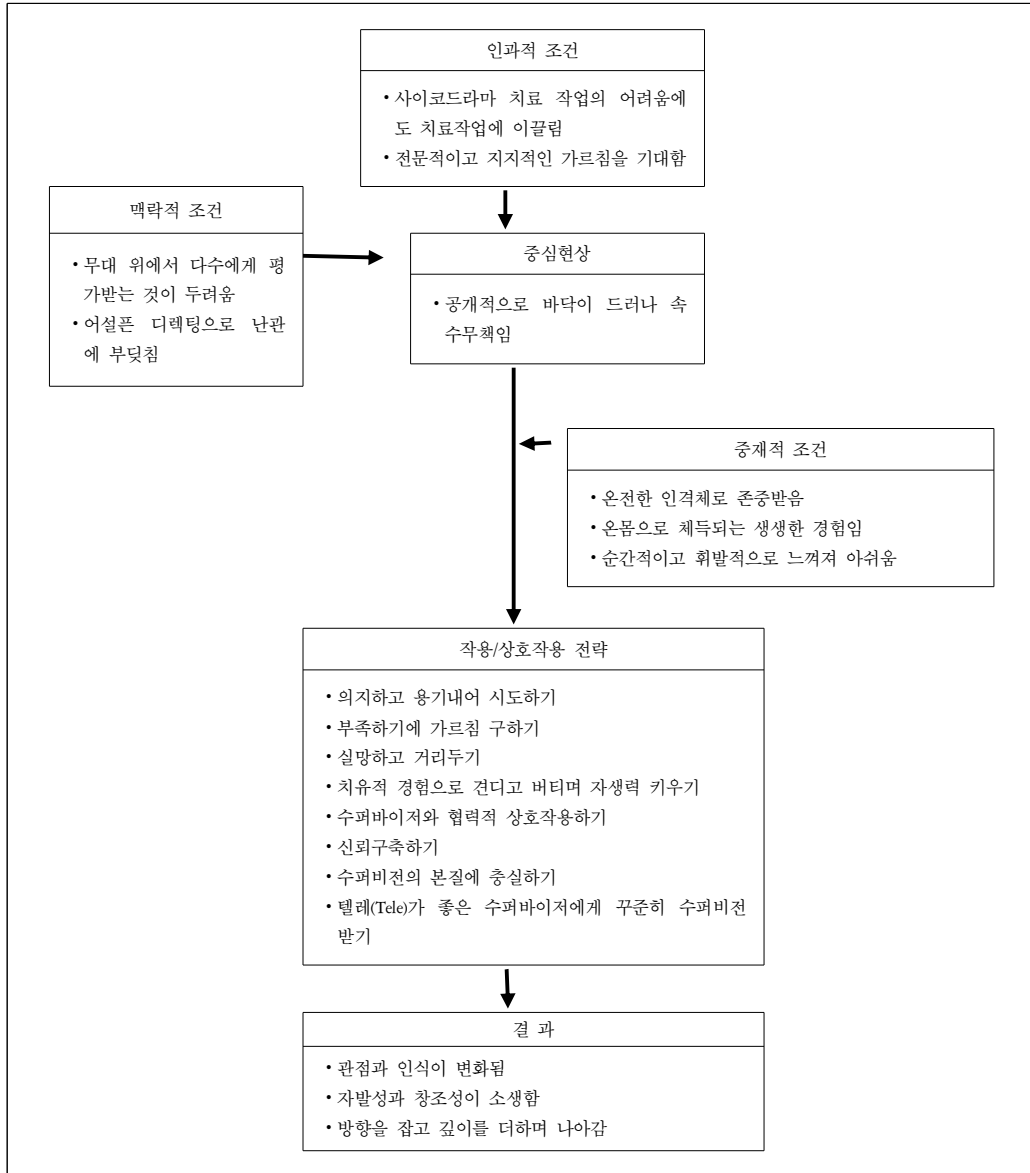


그림 1. 사이코드라마 현장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저의 경험과정에 관한 패러다임 모형

수퍼바이저는 코치잖아요. 코치는 말 그대로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강점을 찾아주고 잘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고 동기부여를 해주는 역할이잖아요. 저는 수퍼바이저는 그렇다고 알고 있어

요. (중략) 뭔가 할 수 있게 동기부여를 해주기를 기대하였죠(참여자 13).

저의 현재 감정 상태나 제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케어해주

길... 제가 의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해주거나 디렉터를 워업시켜 디렉터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준다면...(참여자 5).

맥락적 조건

맥락은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배경 또는 맥락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8). 직접적인 영향이라기보다는 중심현상이 발생하는데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조건으로 ‘무대 위에서 다수에게 평가받는 것이 두려움’, ‘어설픈 디렉팅으로 난관에 부딪침’이 중심현상인 ‘공개적으로 바닥이 드러나 속수무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대 위해서 다수에게 평가받는 것이 두려움

참여자들은 낮은 무대 위에서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디렉팅을 진행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다수의 평가자 앞에서 누군가를 치료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경험하였다. 하위범주로는 ‘다수의 평가에 두려움이 앞섬’, ‘무대에 서서 치료하는 것이 부담됨’이다.

첫 회기.. 그 때는 굉장히 이제 잘 못하니까 불안한 마음으로 심판대에 올라가는 느낌? 그런 고수 앞에서 펼쳐야 하는 거예요. 만약 개인 상담이면 둘이 얼굴보고 그랬어요? 저랬어요? 하고 내가 물어보면 되는데 이거는 집단 앞에서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슈퍼바이저 앞에서 행위로 펼쳐야하니까 안 되면 주위담기가 어려운 상황이.. 굉장히 머쓱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슈퍼비전을 받는데,

목소리도 자신이 없으니까 재미소리로...(참여자 2).

어설픈 디렉팅으로 난관에 부딪침

훈련과정에서 기법 활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슈퍼바이저의 디렉팅 모습을 따라하게 되고 주인공의 감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구조화된 드라마로 주인공을 끌고가고, 주인공의 이슈가 자신의 해결되지 않은 이슈와 연결되면 주인공의 모습 속에 자신을 투사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하위범주로는 ‘어설픈 흥내 내는 위험한 디렉팅을 하게 됨’, ‘주인공에게 역전이가 되어 드라마를 망침’이다.

드라마는 열린 구조잖아요. 그런데 제가 기획을 너무 많이 세워가지고 주인공의 감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주인공을 이리저리하게 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의도를 많이 가지고 했을 때 혼이 났어요. 그때 드라마 자체를 망치기도 하고, 집단의 반응 자체도 무거웠어요. 개념도 모른 채 한 거죠(참여자 12).

주인공이 나랑 이슈가 똑같은 때 나도 모르게 주인공의 감정에 말려요. 불안이 높은 내담자가 나왔는데 도대체 아무 생각도 안나고 제가 너무 불안한 거 예요. 그때부터 그 주인공 말도 안 들리고.. 불안자세를 다루지 못하고 있는 거 예요(참여자 11).

중심 현상

중심현상은 ‘여기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 와 관련되어 있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처

해 있는 문제나 상황에 대해 말하거나 행동하는 모든 것을 대변하는 사건이나 반복된 양상을 의미한다(박승민 외, 2012). 본 연구에서 중심현상은 ‘공개적으로 바닥이 드러나 속수무책임’이었다.

공개적으로 바닥이 드러나 속수무책임

참여자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디렉팅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고, 주인공의 핵심문제를 끌어내지 못한 것에 대한 수치스러움을 경험하였다. 또한 집단원과 수퍼바이저의 부정적인 말투와 표현은 마치 보호받지 못하고 쓸모없는 디렉터가 된 듯한 느낌으로 다가왔다. 하위범주로는 ‘공개적인 질책이 수치스러움’, ‘내쳐지고 쓸모없는 허수아비가 됨’,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함’이다.

수퍼바이저의 지적을 받았을 때 수치심을 느꼈고 집단 안에서 내가 스스로도 못했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힘들고 미안하고 쪽 팔리잖아... 근데 그 쪽 팔리는 수퍼비전 상황을 집단원, 관객들이 다 듣잖아요.... 수퍼비전에서 주인공만 추앙하잖아. 그러니까 디렉터는 항상 소외될 수 있고 혼자 감당해야하니까.... 그러면 디렉터로 다시 선다는 게 어렵거든요. 한번 깨지면 주인공들도 저 디렉터는 디렉팅을 못 해! 저 사람이 앞으로 디렉팅하면 난 주인공 안 할 거야! 이럴 수 있거든요(참여자 11).

중재적 조건

상호작용 전략을 원활히 하거나 저해하는 조건을 의미하는 중재적 조건은 인과적 조건

과 맥락적 조건이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고 변화시키는데 작용한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 중재적 조건은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 받음’, ‘온몸으로 체득하는 생생한 경험임’, ‘순간적이고 휘발적으로 느껴져 아쉬움’으로 나타났다.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받음

디렉터를 수퍼바이저가 주인공화하여 감정을 탐색하게하고 내면을 탐색하는 경험으로 몰랐던 자신을 보게 되고, 강점을 찾아 칭찬해주고 디렉팅을 믿고 지지해주었을 때 힘을 얻으면서 수퍼바이저에게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받음을 경험하게 된다. 이에 하위범주는 ‘몰랐던 나의 내면을 소중한게 다뤄줌’, ‘존중받는 경험을 함’이었다.

디렉팅이 끝나고 개개인 마다 피드백을 해주셨을 때 참 좋았어요. “선생님 이런 부분은 참 잘 했어요”라고 하면 그때 안도감이 드는 거 같아요.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그 수퍼바이저 선생님만이 할 수 있는 사이코드라마를 봤을 때 그 선생님이 가진 상황 안에서 건드려 주는 그런 거가 좋아요. 그걸 수퍼바이저가 얘기해주셨을 때 인정해주시고 공인 받는 느낌이 있어요(참여자 8).

온몸으로 체득되는 생생한 경험임

현장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저는 직접 참관하면서 디렉팅을 한 수퍼바이저의 작업을 평가하고 때로는 직접 개입하여 즉시 피드백을 준다. 참여자들은 현장수퍼비전을 통해 지금-여기에서 느끼는 살아 있는 생생함을 경험하고, 경험은 온 몸으로 체득된다고 표현하였다.

하위범주는 ‘현장수퍼비전은 몸으로 저장됨’, ‘지금-여기에서 경험됨’이다.

관객과 함께 생각해보고 주인공을 직접 만나는 것, 주인공과 집단이 한 번 해 볼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런 게 현장수퍼비전의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 .. 즉각적으로 정말 온몸으로 느낄 수 있게끔 하는 생생함이 있어요. 다른 것도 생각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참여자 4).

현장 수비를 하면서 일단 좋았던 기억은 그 현장에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떻게 진행을 한 가에 대해서 어.. 좀 즉석에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참여자 7).

순간적이고 휘발적으로 느껴져 아쉬움

배우고 있는 훈련생이 사이코드라마를 실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는 어렵다. 그들은 수퍼비전에서 자신 스스로 디렉팅을 해보는 경험을 갖고자 하였고, 수퍼비전을 구체적으로 받고 싶으나 주어진 수퍼비전 시간이 짧고, 사례가 일회적이고 비언어적 표현이 많아 느낌과 피드백을 기록으로 남기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순간적이고 즉흥적인 찰나에 일어나 휘발적으로 사라지는 경험에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하위범주로는 ‘나만의 디렉팅 경험을 갖고 싶음’, ‘사례가 일회적이라 수퍼비전이 이어지지 않음’, ‘수퍼비전도 휘발적임’이었다.

수퍼바이저가 기록지를 꼼꼼하게 작성 해주시면 보관하고 있다가 내가 읽으면 기억에 남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남는게

거의 없어요.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수퍼바이저는 그렇게 메모를 간단하게 남겨주죠. 나중에 보면 모르겠고, 피드백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아 남지 않아요(참여자 5).

작용/상호작용 전략

작용/상호작용은 당면한 문제나 경험하고 있는 중심현상을 다루기 위해 휘하는 의도적 행위 및 개인 내적 논의나 검토를 총칭한다(박승민 외, 2012).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해지는 전략으로 ‘서로 의지하고 용기내어 시도하기’, ‘부족하기에 가르침 구하기’, ‘실망하고 도망가기’, ‘견디고 버티며 자생력 키우기’, ‘수퍼바이저와 협력적 상호작용하기’, ‘신뢰구축하기’, ‘수퍼비전의 본질에 충실하기’, ‘텔레가 좋은 수퍼바이저를 선택해 꾸준히 수퍼비전 받기’가 상호작용 전략으로 도출되었다.

의지하고 용기 내어 시도하기

사이코드라마 치료자의 길을 가겠노라고 결정하고 전문가가 되기 위해 1~3년 과정을 함께 훈련받은 집단원들은 주인공을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던 경험을 가지고 서로서로 의지하고 용기를 주며 수퍼비전에 참여한다. 하위범주로는 ‘실수를 통해 배우는 거라 마음먹음’, ‘주인공 노출 경험으로 서로 용기 냄’이었다.

어쨌든 집단 과정 안에서 서로에 대한 개인적 이야기도 나오게 되고, 그 사람의 개인 수퍼비전 받는 것도 봤고 아니면 사이코드라마 하는 모습도 보면서 아 저

사람이 이런 스토리를 갖고 있구나했지 만 내 것도 꺼내놔주세요.... (중략) 그래서 집단 진행을 할 때 선생님들이랑 한다면 딱 할 수 있겠구나 했죠(참여자 1).

부족하기에 가르침 구하기

디렉터로서 주인공의 문제를 이끌어가기에 자신의 전문적 역량이 부족하고,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 확신이 부족하여 슈퍼바이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하위범주는 ‘전문가적 역량이 부족함을 깨달음’, ‘잘 하고 있는지 가르침이 요구됨’이었다.

집단경험이 많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주인공과 장면을 만들면서 이 기법이 맞는 건지, 내가 잘 하고 있는 건지, 자꾸 과정을 생각하느라 오히려 장면마다 자꾸 막히는 것 같더라고요. 워업은 어떠했는지, 이 장면에서 이 기법을 쓰는 게 주인공한테 맞는 건지..... 기법을 쓰면서 자신 없으니 저도 하면서 제가 알잖아요. 그럴때면 자꾸 슈퍼바이저의 눈치를 보게 되요. 슈퍼바이저의 표정이 쩡그리고 있는지 어때는지....(참여자 14)

실망하고 거리두기

참여자들은 현장수퍼비전 과정에서 수퍼비전을 받을 때 슈퍼바이저의 피드백에 대한 다양한 경험들을 하였다. ‘실망하고 거리두기’라는 범주의 하위범주는 ‘수퍼비전 방식이 체계화되지 않게 느껴져 혼란스러움’, ‘수퍼바이저의 태도와 감정에 실망함’, 수련생의 힘든 마음을 공감 못 받아 수퍼비전을 멀리함’이었다.

수퍼바이저들도 나름대로 각각 특징들이 있다고 봐요. 우리에게 늘 자기 주관 자기 틀을 갖지말고 하라고 하지만 자기 주관이 강하게 계신 분들도 있는 거 같아요. (중략) 외부에서 하는 사이코드라마 수퍼비전을 봤을 때 좀..... 거부감을 느끼거나 왜 저렇게 하지 좀..... 궁금해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 슈퍼바이저들 나름대로 다 달라 상호보완하거나 좀 조절하는 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참여자 3).

수퍼바이저와 슈퍼바이저의 관계가 중요한데. 그런데 수퍼비전에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수퍼비전을 하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나의 디렉팅 과정으로 평가한다는 생각이 안 들고 저의 평상시의 습관이나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디렉팅과 같이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요(참여자 13).

치유적 경험으로 견디고 버티며 자생력 키우기

참여자들이 슈퍼바이저의 질책에 상처를 받은 과정 속에서도 내담자 경험에서 가졌던 치유적 경험은 사이코드라마 치료효과의 확신으로 다시 현장수퍼비전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수퍼비전 경험은 집단 진행에서 유연성이 생기고 야생에서의 경험을 통해 현장수퍼비전 공간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도전의 시간을 갖는다. 하위범주는 ‘치유 받았던 주인공 경험으로 확신을 갖고 견디고 버티며 수퍼비전에 도전함’, ‘경험을 통해 자생력을 키움’이었다.

초창기는 사실 디렉팅을 하는 게 너무 힘들고 상처받고 너무 아팠죠. 오직하면 슈퍼바이저가 미워 1년 동안 수련을 미뤘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 사이코드라마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상실로 인한 상처가 컸을 때 내담자였던 적이 있었어요. 내담자 치료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알기에 견디고 버티는 거죠. 오기발 세우고 크크... 그게 시간이 지나고 한해 한해 지나가면서 어떤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구요. (참여자 2).

수퍼바이저와 협력적 상호작용하기

수퍼바이저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혹은 수퍼비전에 참여한 횟수에 따라 수퍼비전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감정과 생각의 변화가 달라지는 경험을 하였다. 그것은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저의 관계가 일방적이고 ‘위계적인 관계’라는 의식에서 서서히 서로 협력하여 함께 수퍼비전을 이끌어가는 ‘협력적인 상호작용 관계’의 경험이었다. 이에 대한 하위범주는 ‘수직에서 수평으로 상호작용이 변화됨’, ‘협력관계가 되어 함께 과정을 이끌어감’이었다.

전에는 슈퍼바이저가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유연하게 대처를 못했는데 지금은 슈퍼바이저가 어떤 태도와 행동을 하더라도 슈퍼바이저가 어떻게 유연하게 준비가 되었냐에 있는거죠. 수퍼비전에서 내가 준비한 만큼 하는 것에 슈퍼바이저가 왜 이렇게 했는지의 생각을 물어보면 여기까지밖에 생각이 안드는데 혹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왜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하면 되더라구요.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렸네요(참여자 2).

신뢰 구축하기

참여자들은 수퍼비전이라는 일련의 시간을 보내면서 주인공과 집단, 수퍼바이저와의 긍정적인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고 배우고 채우는 과정을 경험한다. ‘신뢰 구축하기’의 하위범주는 ‘집단을 믿게 됨’, ‘수퍼바이저가 마음으로 다가옴’이었다.

디렉팅을 할 때 일단은 내가 틀려도 뒤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시작을 하니깐 그냥 자신 있게 뭐를 하든 어찌든 시도를 해보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어요. 내가 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누가 잡아줄 사람이 있고 그런 안정감이 많이 좌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냥 자유롭게 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든든한 슈퍼바이저가 옆에서 내가 어떻게 되든 간에 나를 도와줄 수 있겠다는 그런 믿음이.. (참여자 15).

수퍼비전의 본질에 충실하기

훈련을 통해 이론을 탄탄하게 다지고 이론을 근거로 한 실체를 만들어 기본에 충실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이 수퍼비전이라 할 것이다. 경험이 축적되면서 수퍼바이저들은 수퍼비전의 본질에 충실한 시간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 ‘수퍼비전의 본질에 충실하기’의 하위범주는 ‘이론과 실체를 연결하며 기본에 충실함’, ‘오랜 수련으로 지적에 초연해짐’이었다.

오히려 남들이 수퍼비전 받을 때 적었던 게 저에겐 더 도움이 되었던 거 같아요. 그땐 내가 차분하니까..... 공개 수퍼비전을 하면 내가 그걸 보고 수퍼바이저가 얘기 한 걸 들으면 그게 오히려 더 잘 보이고 그게 더 공부가 잘돼요. 아.. 저는 수퍼비전을 준비하는 전후라던가 그런 것들 예를 들면, 집단을 준비할 때 과정을 생각해보고 내가 드라마 하기 전에 아 어떻게 해야지 하고 책보고 막 준비하는 단계가 의미가 있는 거 같아요(참여자 6).

‘Tele’가 좋은 수퍼바이저에게 꾸준히 수퍼비전 받기

Moreno(1953)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작용하는 힘을 텔레(tele)라는 용어로 설명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신을 성장시키고 상생하고자 하는 수퍼바이저의 본질적 역할을 이해하면서 어색하고 불편했던 수퍼바이저와의 거부적 텔레가 긍정적 텔레로 변화되는 경험을 하였고, 사적인 만남을 통해 수퍼바이저의 인간적인 면모도 발견하였다. 하위범주는 ‘좋은 텔레로 수퍼비전을 이어감’, 지지해주는 수퍼바이저에게 꾸준히 수퍼비전을 받음’이었다.

텔레가 좋은 수퍼바이저와 함께 할 때는 디렉팅 하면서 눈치 좀 덜 보고 편하고 자연스럽게 진행이 된다는 느낌을 받았고 수월하게 되지 않더라도, 내가 심한 자괴감이라든지 자신감이 없어진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텔레’가 좀 아니다 싶은 분들은 하면서도 부담스럽고 오해를 받을 거 같고, 저 분이 내 의도를 잘 몰라 줄 거 같고 그런 거... 그래서 하고 나서

도 짹짹하고 피드백을 줘도 피드백이 정말 나한테 필요한 피드백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죠(참여자 9).

결과

결과는 다양한 상호작용 전략의 정도에 따라 의도되었던 그렇지 않던 간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8). ‘공개적으로 바닥이 드러나 속수무책임’이라는 중심현상은 ‘관점과 인식이 변화됨’, ‘자발성과 창조성이 소생함’, ‘방향을 잡고 깊이를 더하며 나아감’이 결과로 도출되었다.

관점과 인식이 변화됨

사이코드라마는 주인공의 문제의 핵심을 정화하고 통찰하고 통합하는 정서와 인지적 작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된 주관적이고 제한된 관점으로 주인공을 보는 보존성에서 탈피하여 객관적으로 주인공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견된 하위범주는 ‘디렉팅 진행에 대한 관점이 달라짐’, ‘보존적 인식이 전환됨’이었다.

처음에는 주인공에 대해서 내식으로 저 사람은 뭐일 것 같다.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이 저래서 저런거야’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 거 예요. 그게 주인공을 제 식으로 해석을 한 거죠. 제가 갖고 있는 보존성으로 그 사람과 그 상황을 해석한 거 예요. 그래서 드라마도 주인공의 감정에 따라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구조로 막 가고 있는 거 예요. 이제는 모레노가 말한 것처럼 주인공을 ‘텅빈 스크

린'으로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건 드라마 안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또는 직장 안에서도 달라진 점이에요(참여자 15).

자발성과 창조성이 소생함

수퍼바이저들은 계획이나 구조를 벗어나 주인공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인공과 하나가 되어 자발적으로 드라마를 실연하는 경험을 가졌고, 주인공의 잠재력은 창조적 행위를 통해 극대화 되었다. 이것은 수퍼바이저의 자발성과 창조성의 발현으로 실연된 것이다. 하위범주로는 '온전한 드라마를 실연함', '길이 열리고 창조성이 생성됨'이었다.

사실 뭔가를 잘 해야 되는 상황이고 뭔가 잘못 건드리면 안 되고 여러 가지 긴장을 하고서 내담자의 경험을 제가 이제 디렉터로 하게 되었을 때는 끝나고 기억에 남는 경험은 아 내가 뭔가를 했구나! 많이는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무언가를 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고(참여자 8)

방향을 잡고 깊이를 더하며 나아감

참여자들은 수퍼비전 회기를 거치면서 수퍼비전이 주는 다양한 이점을 인식하였고, 여기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사이코드라마치료의 방향을 잡고 깊이를 더하여 전진하여 나아가게 되었다. 하위범주는 '주인공과 참 만남이 이루어짐', '긍정적 피드백을 받아 능력이 발전 됨', '동료수퍼비전을 통해 자기성장을 도모함'이었다.

존경하는 탭 선생님의 칭찬을 들으니

까..... 그리고 그 뒤로도 왜 이렇게 늘었나 하고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치가 안 보이더라고요 더 주인공의 감정에 집중하게 되고 더 주인공의 보여주는 인생에 제가 더 참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인공의 인생을 오히려 더 주인공과 감정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오히려 더 그랬어요 그게 저한테는 전환점이 되었죠. 그게 큰 에피소드죠(참여자 10).

사이코드라마 현장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저의 경험과정 분석

과정분석은 수집된 자료에서 도출된 패러다임 모형에서의 작용/상호작용들이 중재적 조건에 따라 범주와 하위범주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연속적인 연결을 탐색하여 참여자들의 변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추적하는 단계를 말한다(Corbin & Strauss, 2008). 이는 수퍼비전에서 참여자의 상호작용을 설명하고 행동적 변화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 15사례의 작용/상호작용 전략들이 5단계의 과정으로 수렴되었다. 분석 결과 사이코드라마 현장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저의 경험 과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의존단계, 저항단계, 도전단계, 변화단계, 성장단계로 나타났다(그림 2).

의존단계

사이코드라마 현장수퍼비전의 과정은 집단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수퍼바이저와 다른 수퍼바이저들 앞에서 주인공을 치료해야 한다는 불안감과 두려움에 휩싸여 자율적인 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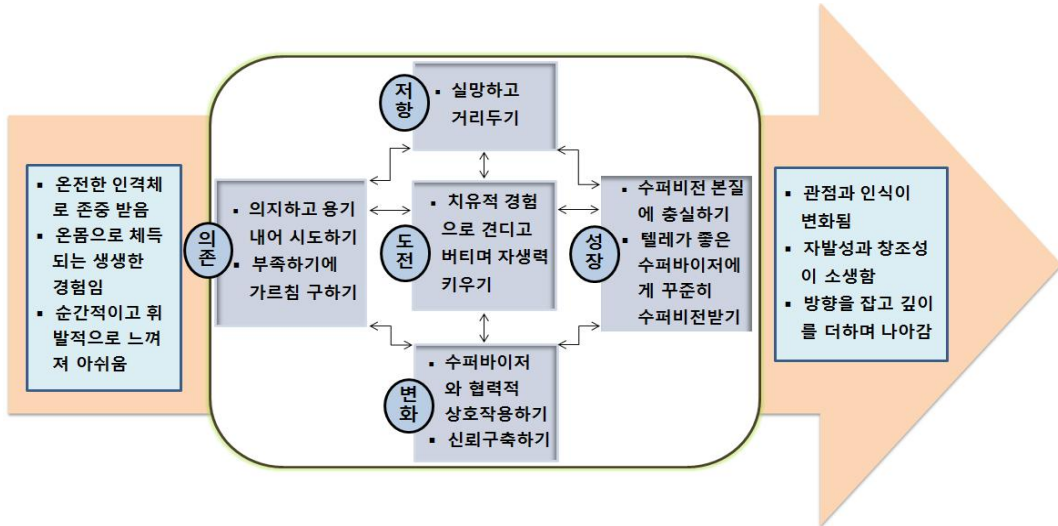


그림 2. 사이코드라마 현장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저의 경험과정

코드라마 진행을 하는데 어려움을 야기하였다. 현장수퍼비전 초반의 경험은 디렉팅을 중단하거나 수퍼바이저의 중도 개입으로 허수아비 같은 신세로 전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디렉팅에서 사용된 기법이나 과정에 대한 부족한 지식으로 수퍼바이저의 질문에 개념도 모르고 답하거나, 아예 답변을 못하거나, 주인공의 본질적 문제 파악을 못하거나, 주인공의 감정을 위협하게 다루었거나, 건강한 행위로 마무리하지 못하는 등 미숙한 실력이 드러나 속수무책에 빠져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관객과 집단원들의 지나친 개입과 피드백으로 참여자들은 자신을 포장하지도 방어하지도 못하고 마치 자신의 존재가 적나라하게 발가벗겨지는 듯이 현장에 그대로 노출되어 머리가 정지된 듯한 혼란을 경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은 서로 주인공이 되어 자신의 문제를 노출했던 경험으로 어려움을 함께 공유한 수퍼바이저들과 마음을 나누면서 ‘못하는 게

당연하다’고 격려하며 언젠가는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용기’ 내어 수퍼비전을 시도한다. 감당하기 어려운 주제를 안고 나온 주인공의 감정과 이슈가 부담되기도 하고, 치유가 우선이라는 상담적 마음으로 독자적인 디렉팅보다 수퍼바이저에게 도움을 구하였다. 이들은 스스로에 대한 확신 부족과 기법의 난해함, 미숙한 디렉팅으로 수퍼바이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의존』의 시간을 보냈다.

저항단계

이 단계는 수퍼바이저의 각기 다른 방식의 수퍼비전에 혼란을 겪게 되면서 수퍼바이저의 비일관된 태도와 불성실한 모습, 수퍼비전 내용의 불만족에 실망하게 되었다. 또한 지지적이고 전문적인 가르침을 기대했던 수퍼바이저들은 수퍼비전에서 사이코드라마의 원리와 기법의 부족한 실력이 드러나면서 수퍼바이저의

지적이거나 훈계에 상처를 받게 되었고, 때로는 슈퍼바이저의 질책이 마치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자신의 실존적 자질을 지적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슈퍼비전을 계속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 하였다. 또한 자신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공개적으로 드러난 슈퍼비전을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고 힘든 수련생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슈퍼바이저의 무심함에 슈퍼바이저와 집단의 피드백을 차단하거나 현장슈퍼비전을 정서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 '피하고 떠나거나 거리두기'를 하는 등 『저항』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다. 디렉팅 과정에서 슈퍼바이저에게 전문적인 지지와 따뜻한 보살핌을 기대하였으나, 오히려 지적과 비난을 더 많이 경험한 슈퍼바이저는 저항의 과정을 더 크게 느꼈다. 슈퍼비전에서 슈퍼바이저가 슈퍼바이저의 내면을 케어해주고, 강점을 찾아 주고 디렉팅을 믿어주고 기다려줄 때, 그들은 힘을 얻고 슈퍼비전 수련을 좀 더 편하게 이어갔고 적극적으로 슈퍼비전에 참여하였다.

도전단계

사이코드라마 슈퍼비전을 멀리하였던 참여자들 중에는 사이코드라마 치료의 치유적 경험으로 치료의 효용성을 잊지 못하거나 상담 장면에서 사이코드라마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면서, 사이코드라마기법을 그들의 상담과정과 교육현장에 적용하고자 강한 욕구로, 힘들고 어렵다고 느끼지만 다시 현장슈퍼비전 과정에 복귀하게 된다. 이것은 사이코드라마의 필요성에 자신의 심적 부담감을 안고 인내하고 버티며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오기를 세우고 자신을 부추기며 전문성 향상을 위

해 사이코드라마 슈퍼비전에 도전하였다. 그들은 '치유적 경험으로 견디고 버티면서 디렉팅 경험'을 쌓아갔고, 슈퍼비전에서 디렉팅 경험은 무대와 드라마에 조금씩 유연하게 대처하고 임상현장에서 새로운 디렉팅 경험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야생의 경험을 통해 맛보았던 짜릿함과 성취감은 사이코드라마 훈련의 중요성을 새로이 인식하게 되고 오히려 현장슈퍼비전이 안전하고 자신의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참여자들은 스스로 독립을 꿈꾸고 자생력을 키우는 『도전』의 단계를 거쳤다. 이후 슈퍼바이저들은 슈퍼비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변화단계

참여자들은 슈퍼비전을 받기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디렉팅을 준비하고, 슈퍼바이저와 질의응답이 가능해지고, 자신의 디렉팅 진행에 대한 생각을 슈퍼바이저에게 이해시키기도 하면서 슈퍼바이저와 주인공과 함께 드라마 진행에 관해 논의도 펼치는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이것은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저의 관계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생각을 나누는 과정에서 '탄력적이고 협력적 상호작용'을 형성하게 하였으며,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라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슈퍼바이저는 집단을 믿는 경험을 가지기도 하고, 슈퍼바이저의 태도에 대한 오해가 풀리는 경험을 가지기도 하였다. 또한 자신의 디렉팅을 믿어주고 생각을 물어봐 주는 슈퍼바이저가 신뢰롭게 다가오고 슈퍼바이저의 평가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시키는 요소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소통을 경험

하였다. 참여자들은 수퍼비전을 통해 자기통찰이 생기고, 사이코드라마에 대한 원리와 기술 역량이 증진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후 수퍼비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수퍼바이저를 자신의 지지자로 세우게 되었다. 나아가 ‘수퍼비전에 대한 신뢰가 구축’되는 크고 작은 『변화』의 단계를 경험하였다.

성장단계

참여자들에게 ‘성장’이란 체험을 통해 이론과 원리를 이해하고 오랜 수련에 심리적으로 단단해지고, 사이코드라마 디렉팅에 대한 유연함과 현장에 대한 적응성, 수퍼바이저와의 긍정적 텔레의 형성함을 말한다. 참여자들은 체험을 통해 이론에 대해 새로이 정립하게 되고 디렉팅 과정을 분석하면서 자신의 모습도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랜 수련과 체험을 통해 수퍼비전의 절실함을 느끼면서 공개적인 수퍼비전에서 성취적 경험을 하게 되고 기쁨과 새로운 주인공의 만남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평가에 대한 객관적 자세를 취하게 되었고 자신을 단련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등 ‘수퍼비전의 본질에 충실’한 시간을 보냈다. 또한 자신이 선호하는 수퍼비전을 해주는 ‘수퍼바이저를 찾기’ 시작하였고, 수퍼바이저와의 긍정적 텔레의 변화를 전문가 성장의 동기로 두고 수퍼바이저와 후속작업을 통해 좋은 텔레를 이어가기도 하였다. 그들은 사이코드라마의 좋은 점을 자기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고 수퍼바이저와의 좋은 텔레를 유지해가며 전문가 과정을 이어갔다. 어떤 참여자는 텔레가 좋은 수퍼바이저가 있는 먼 곳까지 직접 찾아가 수퍼

비전에 참여하는 적극적 자세를 취하며 ‘꾸준히 수퍼비전에 몰입’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은 전문가로 나아가는 『성장』의 단계를 경험하였다.

핵심범주 : 사이코드라마 치료자로서의 비전을 세워 견디고 채우며 소통을 체득하여 나아가

핵심범주는 참여자 진술을 통해 도출된 모든 범주를 포함하는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의 핵심범주로 “사이코드라마 치료자로서의 비전을 세워 견디고 채우며 소통을 체득하여 나아가” 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대부분 자신이 사이코드라마 치료의 주인공으로 참여하여 치유적 경험을 가진 경우가 많았다. 참여자들은 사이코드라마치료의 효과성에 확신을 갖고 사이코드라마 치료자로서의 비전을 세우고, 난관에 부딪쳐도 견디고 이겨내는 시간 속에 신뢰로운 관계를 구축하고 협력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채우고 소통을 체득하여 치료자의 길로 성장하여 나아가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미래계획에 사이코드라마 치료자의 길을 선택하고 비전을 세운다. ‘비전을 세움’은 사이코드라마 치료자가 되기 위해 훈련과정에 참여하여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교육 받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포함하여 향후 자신의 직업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전개할지 방향을 찾아가는 길 찾기 과정이다.

논 의

본 연구는 사이코드라마 현장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저의 경험의 구조와 과정을 설명하는

실체이론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사이코드라마 현장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저의 경험과정은 19개 범주로 구성된 패러다임모형의 구조와 5단계 과정으로 나타났으며 핵심범주는 ‘사이코드라마 치료자로서의 비전을 세워 견디고 채우며 소통을 체득하여 나아감’이었다.

우선 패러다임모형 분석을 통한 경험의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중심현상은 ‘공개적으로 바닥이 드러나 속수무책임’이었다. 사이코드라마 현장수퍼비전이라는 훈련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디렉팅(치료행위)을 주도하고, 그 행위에 관한 피드백을 받는 상황을 포함한 현장수퍼비전에서 참여자들이 느끼는 경험이다. ‘속수무책’의 사전적(표준국어 대사전) 의미를 살펴보면, ‘속수무책’은 손을 묶인 듯이 어찌 할 방책(方策)이 없어 꼼짝 못하는 몸과 마음을 상징한다. 공개적으로 바닥이 드러나 속수무책임의 개념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하위범주로는 ‘공개적인 질책이 수치스러움’, ‘내쳐지고 쓸모없는 허수아비가 됨’,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함’이었다. 이러한 중심현상은 본 연구의 인과적 요인인 ‘사이코드라마 치료 작업의 어려움에도 치료작업에 이끌림’, ‘전문적이고 지지적인 가르침을 기대함’과 맥락적 요인인 ‘무대 위에서 다수에게 평가 받는 것이 두려움’, ‘어설플 디렉팅으로 난관에 부딪침’의 정도 차이에 따라 그 중심현상을 경험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사이코드라마 훈련생들은 교육자와 수퍼바이저 앞에서 연극을 진행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가 커서 집단을 이끌어가야 하는 것을 꺼리게 된다. 이는 사이코드라마 치료 훈련생 중 거의 절반이 교육을 포기하는 결과를 야기한다(Krall et al, 2016)는 연구

와 우리나라 사이코드라마 전문가들의 자격 유지율이 44.2%에 머무르는 현상(양혜진 외, 2015)과 일맥상통한다. 중심현상을 유발하는 결정적인 또 다른 조건은 ‘어설플 디렉팅으로 난관에 부딪침’이었다. 참여자들은 수퍼바이저 앞에 제대로 된 디렉팅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긴장감을 가지고 일반인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내담자들이 참여한 공개적인 집단에서 현장수퍼비전을 받는다. 그들은 치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정서, 인지, 행동이 모두 발현되어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사이코드라마는 실연 과정 내내 디렉터의 요인이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친다. 그것은 연출 능력, 성격적 특성, 진실성, 이해, 존중, 관심, 지지와 공감을 할 수 있는 진실한 디렉터의 역할로 수퍼바이저들의 수행불안을 불러일으킨다. 수행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감과 자기중심성이 필요하다. 사전에 불안감과 제한성을 유발한 상황에서 더 자기 주장적인 행위를 실행해보는 것은 불안과 관련된 반응의 강도를 낮출 수 있다(Wolpe, 1969). 실제로 본 연구의 참여자 11과 참여자 14는 수퍼바이저로서 수행불안을 과도하게 느낄 때 다른 디렉터의 주인공이 되어 ‘디렉팅의 불안’을 직접 다루어 자신의 디렉팅 불안을 해소하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은 수퍼비전 경험의 과정에서 자신의 디렉팅 수행에 대한 자기수용이 생겨나는 경험을 하였다. 이장호(1998)는 현실적인 자기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한다면 정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타인이나 환경 조건에 대한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온다고 설명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수퍼비전 경험을 통해 자신과 주인공, 집단원들의 인생을 만나는 역동을 경험하게 된다. ‘지금 이곳’에서의 상황에서 매순간 자발성과 창조성을 발휘해야

하는 수퍼바이저는 주인공과 집단원, 나아가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스스로 자각하고 상담자로서의 모습을 점검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수퍼바이저의 경험은 의존, 저항, 도전, 변화, 성장의 5단계 과정으로 나타났다. 수퍼바이저의 발달 단계를 설명한 선행연구에서 Hogan(1964)은 의존, 의존과 자율사이의 갈등, 자율성의 3단계 과정을 제시하였다. Loganbill 등(1982)은 정체기, 혼란기, 통합기의 3단계로 제시하였고, 하정과 홍지영(2011)은 준비, 갈등, 소통, 도전, 자율성 획득의 5단계로 설명하였다. 또한 조운진, 이은진, 유성경(2014)은 혼란을 경험하는 단계, 수용을 맞추려는 단계, 단념과 포기 단계, 대처를 고안하는 단계, 빠져나와 바라보는 단계, 성찰과 통합의 단계로 6단계 과정을 설명하였다. 연구자는 본 연구에서 밝힌 수퍼바이저의 경험 과정을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 설명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퍼바이저는 사이코드라마의 원리를 일깨워주고 자신의 감정 상태와 발달수준을 고려한 수퍼바이저의 지지적인 가르침을 기대하며 집단원과 수퍼바이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의존단계’의 시간을 보낸다. 이것은 Hogan(1964)의 상담자 발달 1수준에서 상담자는 불안하고 의존적이며 자기 행동에 대한 통찰이 부족하나 상담에 대한 동기수준이 높으며 한 가지 상담기법에 의존한다는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Loganbill 등(1982)의 발달단계에서 상담자 정체기로 낮은 자존감과 강한 의존심으로 자신의 내적 능력을 평가절하하고 수퍼바이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모습을 띠고 수퍼바이저에 대한 태도로는 수퍼바이저를 전능한 사람으로 이상화하여 의존한다는 연구와 잘 부합된다. 이때 수퍼바이저는 모델링을 제

공하고 교육 과정에서 지지와 격려가 필요하다. 수퍼바이저의 성급한 충고는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을 방어하게 만든다. 방어를 멈추고 평가를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는 게 필요하다. 둘째, 실망하고 거리두기의 ‘저항단계’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수퍼바이저에게 기대하고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면 그 기대가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경험을 하면서 수퍼비전에 실망하게 되고, 집단과 수퍼바이저를 불신하는 마음이 증폭되어 차단과 거리두기로 저항의 시간을 가진다. 이러한 현상을 야기하는 것은 수퍼바이저의 발달적 욕구에 민감하지 않고 발달적으로 부적절한 수퍼비전을 하거나 수퍼바이저의 방식이나 견해를 인정하지 않는 수퍼바이저의 권위적 태도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저의 상하 수직관계가 학습경험에 방해요소로 작용(방기연, 2006)하여 생산성이 떨어지는 수퍼비전이 되고(Lucas, 2013). 수치감과 불편감 같은 수퍼바이저의 부정적인 감정은 수퍼바이저에게 자기를 개방하지 못한다(Bernard & Goodyear, 2013; Okech, 2008). 수퍼바이저들은 자신에 대한 자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강하게 생겨나 방어하고 저항하는 갈등단계를 밝힌 하정과 홍지영(2011)의 연구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퍼바이저는 성실한 태도와 수퍼바이저의 발달수준, 수퍼바이저의 교육 요구를 고려하여 수퍼비전에서 배우고 익혀야 할 지식과 기술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감정반영이나 질문을 비롯한 세부적 기법 훈련에 대한 수퍼비전 전략을 세우고, 이론과 실재를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셋째, 본 연구 참여자들은 저항의 시간을 거치면서 사이코드라마에 대한 효율적

가치를 세우기 시작하고 ‘도전단계’에 정면 돌파한다. 그들은 상담 장면에서 사이코드라마를 실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거나, 상담의뢰로 인한 사이코드라마의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느끼면서, 그 간의 실망을 접어두고 어렵지만 다시 한 번 용기 내어 새로운 마음으로 참여하고 부딪친다. 부딪침이 여전히 두렵지만 제대로 배워보고 싶고 사이코드라마로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게 자극한다. 이러한 환경은 슈퍼마이즈에겐 늘 도전이고, 크고 작은 떨림이다. 이는 Hogan(1964)의 상담자 발달 2수준에 해당되는 의존과 자율사이의 갈등단계에 부합되고, 조윤진 외(2014)의 발달단계에서 대처를 고안하는 단계와 부합된다. 슈퍼마이즈들은 부정적인 슈퍼비전 경험에서 혼돈을 벗어나기 위해 시도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 단계이다. 넷째는 디렉팅 경험이 조금씩 쌓이고 슈퍼비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슈퍼마이즈는 슈퍼마이즈와 원활한 상호협력적 작용으로 신뢰를 구축하는 ‘변화의 단계’를 거친다. 이 단계는 슈퍼마이즈의 질문에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질의응답이 가능해지면서 논의를 통한 디렉팅도 가능해진다. 슈퍼마이즈의 평가가 나 자신을 위함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슈퍼마이즈와 슈퍼마이즈, 집단이 서로를 믿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이는 하정, 홍지영(2011)의 소통단계와 일치한다. 집단수퍼비전에 대한 부담감이 적어지고, 자기를 표현하고, 슈퍼마이즈와 집단원들의 피드백을 수용하는 상호작용을 통해 수용과 소통을 경험하며 부정적인 피드백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통찰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슈퍼비전에서 상처를 받은

경우의 슈퍼마이즈는 개인 슈퍼비전에서 다루거나 뒤풀이에서 이를 다루면서 해소하기도 하였다. 조윤진 외(2014)의 빠져 나와 바라보는 단계와도 부합된다. Falender와 Shafranske(2015)는 슈퍼비전에서 슈퍼마이즈들은 개인적인 갈등을 논의하고 확인하는 슈퍼마이즈를 가장 선호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슈퍼마이즈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단서는 슈퍼마이즈와 슈퍼마이즈가 서로 협력적 상호작용을 통해 슈퍼마이즈 자신이나 주인공의 문제 해결에 좀 더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관계 갈등에 대해 풀어가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 단계는 슈퍼마이즈의 성장이다. 이 단계는 슈퍼비전의 본질에 충실해지는 과정으로 이론을 실제와 연결하며 텔레가 좋은 슈퍼마이즈에게 꾸준히 슈퍼비전을 받는다. 슈퍼마이즈는 슈퍼비전을 자기 성장에 기회로 삼고, 사이코드라마 안에서 자신의 진실을 찾아가는 시간을 보낸다. 이는 Loganbill 등(1982)의 상담자 발달 단계에서 통합기에 부합된다. 지속적인 슈퍼비전 과정을 통해 재조직, 새로운 인지적 이해와 유연성 그리고 개인적 안정감을 형성하는 단계로 지속적인 성장 단계이다. 하정, 홍지영(2011)의 발달단계의 자율성획득 단계와도 부합된다. 슈퍼마이즈는 슈퍼마이즈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 그들의 자율성과 자신감을 고양시킴으로써 사이코드라마 디렉터라는 역할을 지원하고 사이코드라마 연구자라는 역할을 만들어내도록 하여 연구자로서의 역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을 습득(Krall & Fürst, 2009) 하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집단상담자로서 집단을 바라보는 전문적인 안목과 인간을 바라보는 인간적 자질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한다(Corey, Corey, & Corey, 2016).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핵심범주는 ‘사이코드라마 치료자로서의 비전을 세워 견디고 채우며 소통을 체득하여 나아감’이었다. 사이코드라마 현장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저는 수퍼바이저에게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 받으며 현장수퍼비전의 생생함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중재적 조건의 영향으로 수퍼바이저는 사이코드라마 치유경험을 바탕으로 어렵고 긴 훈련과정을 견디고 버티면서 수퍼비전에 참여하게 된다. 이들은 수퍼바이저가 자신의 감정을 탐색하여 이끌어주고 내면을 보살피 주었을 때, 강점을 찾아주고 믿고 지지해줄 때,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받았을 때 수퍼바이저는 열정을 가지고 도전해나가며 집단과 협력적 상호작용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과정은 자신과 집단을 수용하고 소통으로 나아가게 하였다. 이는 홍지영, 하정(2009)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수퍼비전 초기에 수퍼바이저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방어와 저항을 하였으나 수용과 소통을 경험하면서 성장을 향해 다양한 교육에 도전하였고, 이것은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신뢰를 키워나가는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자신을 편안하게 드러내고, 지속적인 관계 안에 성장 하고, 의식이 변모되어 전문성을 획득하는 경우와 멀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무엇보다 수퍼바이저의 지지와 적절한 격려가 주어졌을 때 수퍼바이저는 수퍼비전 상황에 집중하게 된다(유영권 외, 2013). 그러기에 초심 수퍼바이저를 교육하는 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저는 더욱 더 관계 형성에 주력해야한다(Veach, 2001). 본 연구 참여자들은 수퍼바이저에게 인격적으로 존중 받게 되면서 자신의 지금 이순간의 정서와 사고, 행동, 가치관 등에 대한 자각이 이루어지고, 자기 내부와의 소통이 원활해지면서

타인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게 되는 인식의 변화가 생기고 이것은 참 만남의 관계를 이루게 하였다. 참 만남은 서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고, 현장수퍼비전에 충실해지는 핵심적 요소로 작용하였다. 한편 본 연구 참여자들이 사이코드라마에서 직접 주인공이 되어 상처를 치유 받았던 자신의 내담자 경험은 사이코드라마 치료의 효과성을 확신하는 계기가 되어 치료자의 비전을 세우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사이코드라마 치료 효과성의 확신은 어렵고 힘든 현장수퍼비전 과정에 비전을 세워 다시 도전장을 내고, 집단과 수퍼바이저와의 관계 속에 견디고 채우며 소통을 체득하여 나아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무엇보다 사이코드라마의 특수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사이코드라마의 특수성을 고려한 집단치료와 수퍼비전이 융합된 현장수퍼비전을 경험하는 수퍼바이저들의 생생한 현장 경험을 심층 면접한 질적 연구로써 참여자의 경험의 실체를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것은 한국의 사이코드라마 전문가 훈련 과정에 대한 방향을 안내하고, 사이코드라마 연구가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사이코드라마 수퍼바이저의 성장과정과 전문성 발달 요인을 밝혔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는 수퍼바이저가 현장수퍼비전을 통해 경험하는 구조를 밝히고, 이들의 성장단계를 모형으로 도출하여 사이코드라마 수퍼바이저만이 경험하는 세계를 좀 더 입체적으로 도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험의 과정에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효과적인 수퍼비전의 개입에 대해 실제적으로 밝힘으로써 사이코드라마 현

장수퍼비전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점이 의의가 크다.

반면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참여자 표집 대상으로. 현재 사이코드라마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회나 협회, 기관들은 상당수의 수련생을 양성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수퍼비전이 이루어지는 학회나 기관은 많지 않은 관계로 여러 학회의 수퍼바이지를 모집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자는 사이코드라마의 특성상 집단치료가 이루어지는 현장수퍼비전의 상황에 노출된 수퍼바이지의 경험을 표본 추출하고자 일반수퍼비전이나 개인수퍼비전의 경험자를 제외하였다. 또 하나는 참여자의 성별에 대한 균형을 두지 못했다. 이는 모든 상담계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으로 남성 수퍼바이지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는 학회와 협회에 모집공고를 올렸으나 참여를 희망하는 자가 대부분이 여성이었다. 연구자는 여성참여자의 소개를 통해 남성 참여자를 어렵게 모집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여성참여자는 11명, 남성참여자는 4명을 심층면접 하였고 이론적 표본추출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남성과 여성의 현장수퍼비전 경험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코드라마 현장수퍼비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퍼비전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이고 일관적인 기준을 제시할 공통된 지침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퍼바이저마다 서로 다른 수퍼비전 접근은 수퍼바이저로 하여금 혼란을 겪게 하므로 공통된 지침이 마련된다면 수퍼바이저의 저항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수퍼바이저의 자율성은 부여하되 수퍼비전의 평가기준은 일관적이고 객관화된 평가기준을

사용한다면 수퍼바이저로서 성장하고 정체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좌절과 갈등을 미리 예상하고 수퍼비전 과정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두려움과 불안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이코드라마 현장수퍼비전은 수퍼비전 자체로 훈련이 된다. 수퍼비전에서 경험한 모든 것은 수퍼바이저의 전문성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현장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저들은 집단원과 수퍼바이저의 평가에 좌지우지될 뿐 자기 스스로의 기록을 남기거나 사후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현장수퍼비전은 일회적이고, 체험적이라 현장을 떠나고 나면 수퍼비전에 대한 자료나 기억은 남아있지 않는다. 학습의 결과가 통합된 지식의 일부가 되도록 여러 방안을 마련할 것이 요청된다. 셋째, 사이코드라마 수퍼비전 형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참여자들은 현장수퍼비전에서 실제 수퍼바이저의 디렉팅 진행과정을 ‘비디오녹화’하여 과정 분석을 통해 객관적으로 피드백 받는 수퍼비전을 가장 선호하였고, 가장 효과적이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현장의 여러 상황적 조건이 여의치 않아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비디오녹화 수퍼비전’이 자격과정의 필수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그들의 욕구를 채우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다. 참여자들은 또 다른 형식의 ‘공동치료 수퍼비전’을 선호하였다. ‘공동치료 수퍼비전’은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저가 디렉팅 진행과정과 주인공 탐색에 대해 함께 논의하여 과정을 이끄는 형식으로 적절한 치료과정을 직접 참여하여 만들어 가는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즉각적인 피드백이 허용되며, 수퍼바이저와 주인공(내담자)의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들을 평가할 수 있고 수퍼비전과

치료의 중재를 동시에 발전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 이렇듯 수퍼바이저의 요구를 반영한 보다 다양한 방식의 수퍼비전이 고안되고 실행 될 필요가 있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의 길을 꾸준히 가고 있는 사이코드라마 수퍼바이저들의 연구에 초점을 두었으나, 후속연구에서는 사이코드라마 전문가 자격을 취득 후 활동을 하지 않은 전문가들의 경험의 과정을 연구하여 사이코드라마 전문가의 길을 유지하지 못하는 원인과 걸림돌이 무엇인지, 전문가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를 좀 더 심층적으로 연구한다면 우리나라 사이코드라마 발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둘째, 사이코드라마 현장수퍼비전 직후 수퍼바이저들을 위한 자기보고식의 평가도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현장수퍼비전의 휘발성을 고려할 때 수퍼바이저의 인지 재정립과 체계적인 학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참고문헌

고형은 (2017). 초심상담자의 상담 수행 불안에 대한 수용-기반 개입의 효과.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두경희, 김계현, 김동민 (2008). 수퍼비전 성과 연구의 동향과 과제. 상담학연구, 9(3), 1007-1021.

방기연 (2006). 상담심리사의 수퍼비전 경험에 대한 질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18(2), 233-254.

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2004). 질적 연구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양혜진, 성은옥, 김주현 (2015). 사이코드라마 수퍼비전에 관한 질적연구- 연구과제 제안을 중심으로 -. 한국 사이코드라마학회지, 18(2), 31-47.

유영권, 김계현, 김미경, 문영주, 손은정, 손진희, 심홍섭, 연문희, 천성문, 최의현, 최하나, 최해림 (2013). 상담수퍼비전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이장호 (1998). 대인관계적 상보성과 상담성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0(1), 95-119.

조윤진, 이은진, 유성경 (2014). 상담심리치료 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저의 부정적인 경험의 변화과정. 한국 심리학회지, 26(4), 841-877.

최대현 (2016). 드라마심리상담 1. 한국드라마심리상담협회.

하 정, 홍지영 (2011). 집단수퍼비전 경험을 통한 상담자의 발달적 변화과정. 아시아교육연구, 12(3), 279-303.

홍지영, 하 정 (2009). 집단 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저로서의 경험. 상담학연구, 10(3), 1427-1451.

Apter, N. (2003). The human being: J. L. Moreno's vision in psychodrama.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therapy*(European Association for Psychotherapy), 8(1), 31-36.

Bernard, J. M., & Goodyear, R. K. (2009). *Fundamentals of clinical supervision*. (4th ed.). Boston: Pearson Education, Inc.

Bernard, J. M., & Goodyear, R. K. (2013). 상담수퍼비전의 기초 (유영권, 방기연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전은 2004년 출판).

Corbin, J., & Strauss, A. (2008). *Basi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 developing grounded theory 3e*, Los Angeles, Calif. Sage Publications.
- Corey, S., Corey, G., & Corey, C. (2016). 집단상담 과정과 실제 (김진숙, 유동수, 전중국, 한기백, 이동훈, 권경인 역). 서울: CENGAGE Learning(원전은 2014에 출판).
- Denzin, N. (1989). *The research act: A theoretical introduction to sociological methods(3r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Falender, C. A., & Shafranske, E. P. (2015). 임상 슈퍼비전: 단계별 효과적인 슈퍼비전이란 무엇인가. (유미숙, 전성희, 정윤경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04에 출판).
- Fontaine, P. (1994). In Belgium CFIP - Verveine. In P. Fontaine (Ed.), *Study and coordination of Psychodrama Education in Europe*, 46-49. Oxford Meeting. 1994. Preliminary documents.
- Forinash, M. (Ed.). (2012): 음악치료 슈퍼비전 (정현주, 김동민, 김수지, 김영신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01에 출판)
- Foulkes, S. H. (1975). *Group analytic psychotherapy: Method and principles*. London: Gordon & Breach.
- Glaser, B. G., & Strauss, A. L.(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Hawthorne, NY: Aldine de Gruyter.
- Goodyear, R. K., & Nelson, m. L. (1997). The major formats of psychotherapy supervision. In C. E. Watjons Jr (Ed.), *Handbook of psychotherapy supervision*. New York: John Wiley & Sons.
- Haynes, R., Corey, G., & Moulton, P. (2006). 상담 및 조력 전문가를 위한 슈퍼비전의 실제 (김창대, 유성경, 김형수, 최한나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원전은 2006에 출판).
- Hinkle, M. G. (2008). Psychodrama: A creative approach for addressing parallel process in group supervision. *Journal of Creativity in Mental Health*, 3(4), 401-415.
- Hogan, R. A. (1964). Issue and approaches in supervision.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1, 139-141.
- Krall, H. (2008). Psychodrama und soziometric in supervision und coaching. Anknüpfungspunkte in der qualitativen soziforschung. In H. Krall, E. Mikula, & W. Jansche W. (Eds.), *Supervision und Coaching*, 252-268.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 Krall, H., & Fürst, J. (2009). *Research in psychodrama training*. Paper presented at the 17th congress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group psychotherapy and group processes (I.A.G.P.), Rome August 24-29.
- Krall, H., & Fürst, J., & Fontaine, P. (2016). 사 이코드라마 슈퍼비전 (최대현, 방기연, 심호규, 소용주 역). 서울: 박학사(원전은 2012에 출판).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 Loganbill, C., Hardy, E., & Delworth, U. (1982). Supervision: A conceptual model. *Counseling Psychologist*, 10(1), 3-42.
- Lucas, T. C. (2013). *Development of a preliminary scale of counterproductive experiences in supervision: Attitudes of clinical psychology internship directors of training*. Dissertation, Pepper Dine University.
- Marineau, R. F. (2006). *Supervision in psychodrama and group work and the model of the reflexive practitioner*. A Summaru. Workshop at IAGP

- Congress at Sao Paolo.
- McClain, F. J. (2001). *Music therapy supervision: A review of literature*. In M. Forinash (Ed.), *Music therapy supervision*, 9-17. Gilsum, NH: Barcelona Publishers.
- Moreno, J. L. (1953). *Who shall survive?*. Beacon, NY: Beacon House.
- Okech, J. E. A. (2008). Reflective practice in group co-leadership. *The Journal for Specialists in Group Work*, 33
- Padgett, D. K. (1998). *Qualitative research in social work research: Challenge and rewards*. CA: Sage.
- Stern, P. (1980). Grounded theory methodology: Its use and processes. *Images: The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12, 20-23.
- Stoltenberg, C. D., & McNeill, B. W., & Delworth, U. (1998). *IDM: An intergrated development model for supervising counselors and therapists*. San Francisco: Jossey-Bass.
- Straus, A., & Corbin, J.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California: Sage.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Tsegos, I. K. (1993). Strength, power and group analysis. *Group Analysis*, 26(2),131-137.
- Tsegos, I. K, & Tseberlidou, M. (2002). The oneirodrama group. The therapeutic and supervisory process of a dream drama group. In C. Neri, M. Pines & R. Friedman (Eds.), *Dreams in Group Psychotherapy. The and Technique* (pp.233-253). London: Jessica Kingsley.
- Veach, P. M. (2001). Conflict and counter productivity in supervision-when relationship are less than idea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8(4), 396-400.
- Wolpe, J. (1969). *The practice of behavior therapy*. New York: Pergamon.

원 고 접 수 일 : 2018. 07. 23
수정원고접수일 : 2018. 09. 04
게 재 결 정 일 : 2018. 10. 22

Supervisee Experience in Live Psychodrama Supervision

Eun-Sook Jo

Jung Ha

Ieonju University

This study is to model an entity theory, defining the experimental structure as well as the process of the supervisee in live psychodrama supervision. A total of 15 supervisees were selected to carry out in-depth interviews two or three times to collect research data, which consequently was analyzed in accordance with the Grounded Theory by Strauss and Corbin(1998). Overall, 103 concepts, 43 sub-categories, and 19 categories were derived from the study. The experimental paradigm was also in accordance with the central phenomenon, 'helplessness due to open criticism and frustration'. The selected participants' experiences were categorized as a 5-stage-developmental procedure: 'reliance', 'resistance', 'challenge', 'change', and 'growth', where 'setting up one's vision of a psychodrama therapist and learning to communicate for improvement' was defined as the core category. The findings consequently led to effective learning, improved operational logistics of psychodrama supervision, and extending discussions on substantial experiences during live supervision.

Key words : psychodrama, live supervision, entity theory, grounded theory